

출판기념 행사에서

2008-12-11 6:30PM

안녕하십니까! 이 행사의 준비위원장이신 장필화 교수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송구스럽게 감사합니다.

이 나이가 되기까지 살면서 다양한 행사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일에 익숙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실마리를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렵사리 뒤엎킨 심정을 푸는 가닥으로 잡힌 말은 '부끄럽다',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세 마디였습니다.

목적지향적인 남다른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산 흔적이 활자화되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책이 만들어진다는 기획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저의 느낌은 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알지 못한 채 정계에 입문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때에 총선을 지휘해야 하는 제1야당의 총재권한대행의 중책이 맡겨졌을 때의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이 시점에 서게 된 것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책을 읽으면서 떨칠 수 없었던 생각은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70~1986년에 이르는 '여성운동 한복판에서'라는 대목에서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산 것은 누구 혼자만의 삶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그 길목마다에 한 사람의 이름이 말뚝처럼 박혀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때 함께 했던 수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책이 세상에 나온 마당이고 보니 짓눌렸던 압박감으로 인한 원망을 뒤로 한 채 책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신 분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짧은 말로밖에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김현아 작가님! 80대 이후의 세대들이 지난 80년간의 격동의 세월을 한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살아온 삶의 기록을 많은 문헌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편력하시면서 타고난 필력을 발휘하여 herstory를 만들어내신 것.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의 유승희 대표님!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여름 종횡무진 발품을 팔며 힘들었음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세심한 배려로 책을 꾸며내신 것, 그리고 또하나의문화의 다른 분들이 수고하신 것.

이희호 여사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인터뷰해주신 분들! 귀한 시간 할애하여 주시고 허물은 감싸둔 채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거나 몰랐던 말씀으로 책의 무게를 더하여 주신 것.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적이며 여성친화적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숲살리기를 비롯한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유한킴벌리 사회공헌팀! 이번 일에도 재정 지원하여 주시는 것.

표지사진을 촬영하여 주신 조세현 사진작가님! 제 평생의 가장 잘 된 사진으로 책을 값지게 해주신 것과 우리 손녀가 할머니를 미인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

이 행사를 만들어내느라 애쓴 사랑하는 후배들! 선배다운 데가 별로 없는 선배임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사는 동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

오늘까지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 분들을 잊을 수 없으며 날씨도 춥고, 연말이라 바쁘실 터인데 기억하시고 이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비치고 있는 사회현상이 우리 세대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70~80년대의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는 듯해서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올렸던 민주주의 발전과 성평등사회 그리고 생태적 환경보전의 역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로서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선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방법이야 과거를 답습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당시 여성들의 결단과 결집의 역동성은 되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저자가 70~80년대의 사회상황과 여성들의 발자취를 더듬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성들의 역사인 history는 있으나 여성의 족적이 담겨진 herstory가 약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낸 역사는 있는데 기록된 역사가 부족하다는 것이겠지요. 또하나의문화가 이번 책을 펴내면서 Herstory 시리즈로 명명하고 작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성이 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배, 동료, 후배 여성들의 보다 훌륭한 삶이 기록되는 여성의 역사라는 커다란 조각보를 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도 한 개의 작은 조각 천으로서 한 구석을 메우게 된 것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연말인데 시간을 쪼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보람찬 송구영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을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께는 보이지 않는 꽃다발을 드리며 용서하신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꽃다발을 세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아 작가님, 유승희 대표님, 그리고 조세현 작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